

'2008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유영숙 박사 “생명과학에 지속적인 투자 절실하다”



글 | 김희원 _ 한국일보기자 hee@hk.co.kr

오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과학연구본부장은 10월 2008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3회째인 이 상은 여성 과학자를 대상으로 총상금 7천500만 원을 주는 최대 규모의 여성과학자상이다.

상금 3천만 원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그는 2004년 KIST 최초의 여성 센터장이 되었고 지금은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본부장이자. 물론 표준과학연구원 같은 다른 정부출연연구소는 이미 여성 원장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구계에서 여성 보직자의 수는 극히 드물다. 여성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생명과학분야에서도 그렇다. 논문과 특허 발표 등이 260건에 달하고, 학술지 '전기이동'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리뷰 논문을 통해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과학적 업적 위에 과학계의 여성 리더로서의 유 본부장의 역할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양한 인프라 갖춘 출연연이 연구하기 최적 환경

유 본부장 자신은 “사회적 분위기를 잘 탔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연구원이 아닌 보직자의 역할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연구원 시절에는 행정동 근처에도 오지 않고 조용히 내 연구만 하던 사람이었다”는 그는 보직을 맡고나서부터 마음 편치 않은 일도 겪었다.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과 저녁자리가 있으면 소속 부원들이 일부러 유 본부장이 갈 수 없는 날을 잡아 자연스럽게 남자들끼리만 자리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순간이 그런 경우다.

“그때는 물론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여성 상사에 대한 경험이 적고 낯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성적인 리더십이 아니라고 해서 리더 역할을 못할 리는 없다는 뜻이다. 보직자의 중요한 역할은 결국 자원 배분과 인사. 이런 일을 하다보면 가끔은 공격적이고 결단력 있게 밀어붙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한 그는 자기 식



김민정

다. 천상 연구원이다.

사회와 국가가 육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물론 여기에 오기까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란 유 본부장도 쉽지 않았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맡아 주었기에 밤늦은 실험이나 출장이 가능했고, 이해심 많은 남편은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다는 것.

“아이를 대학까지 보낸 저는 숙제를 다 했지만 요즘 점점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연구원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안쓰러워요. 육아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회의 기반시설을 갖

추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남성들로부터 역차별 이야기도 나오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를 기대하려면 고급 여성 인력이 반드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구계에 ‘바이오 괴담’이 떠도는 등의 해프닝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무겁다. 정부의 연구비예산 투입 대비 연구성과를 분석한 새 정부가 가장 성과가 적은 분야로 생명과학 분야를 꼽으면서 “바이오분야는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나오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구개발비 예산이 대폭 감축되리라는 것이 과학계에 떠돌던 바이오 괴담의 내용이다.

유 본부장은 “이런 식으로 휘몰아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한다. “바이오 분야는 곧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술과는 달리 5년 만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20년으로 긴 시간을 거쳐서야 실적이 날 수 있죠.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10년 간 우리 나라만 봐도 국민의 수명이나 건강수준 등이 크게 향상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생명과학자들의 오랜 기초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제품만을 성과로 보려 하니 바이오 분야의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생명과학연구는 일정 수준 쌓인 이후부터 결과물이 나오는 ‘물탱크 채우기’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축구선수에게 왜 농구선수처럼 100골쯤 넣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생명과학 기초연구의 저변은 최근 단시간에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젊은 여성 생명과학자 중에도 세계적으로 어깨를 겨루는 쟁쟁한 연구자들이 많지요.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과 복지라면 생명과학에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지 않겠어요?”

의 접근을 했다. 실험장비와 연구비 분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하겠다. 단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그 밖에 연구선임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술을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하는, 그런 일은 못했어요. 하지만 필요한 연구비나 장비, 공간을 지원하고, 외국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끔 돕는 일 같은 건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그런 일을 경험하자 연구원들이 ‘아, 여자가 있어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섬기는 자세로 일하고 있고, 부원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을 느낍니다.”

유 본부장은 이화여대에서 화학(학사)과 생화학(석사)을 전공하고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화학에서 시작했지만 생명과학쪽으로 연구분야를 접목시켰다. 전기영동법과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생체고분자물질의 분석이 전문분야로, 최근에는 세포 내 신호전달기전에 초점을 맞춰 질병치료제 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그가 스탠퍼드대 의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뒤 KIST에 자리를 잡은지는 올해로 19년째이다. 그는 “그 동안 대학교수 자리를 알아보거나 다른 연구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는 등 한눈 판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쉽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비 수주하느라 고생스럽고, 논문이나 특허, 기술이전 중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고과실적이 C, D로 떨어지기 십상인, 스트레스가 엄청난 환경이다. 하지만 강의 부담이 없고,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하기에는 최적이라는 것이